

## 보육시설 청소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행동문제: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를 중심으로\*

최 은 경<sup>†</sup>

오 수 성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양육되는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애착유형의 차이를 비교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애착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보육시설 집단의 애착유형 중 어떤 애착유형이 내재화문제 또는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육시설 집단의 환경적 특성(입소원인, 입소 연령 및 기간, 부모생존 유무, 시설 내 친형제 유무, 정기적 만남 유무, 보육사 교체여부)에 따라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에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는 보육시설 집단 16명이었고, 비교집단으로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일반가정 집단 16명이었다. 군집분석을 통해 애착유형을 분류한 결과, 보육시설 집단은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 순이었고 일반가정 집단은 안정형, 불안양가형, 회피형 순이며, 두 집단간에 애착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시설 집단과 일반가정 집단의 애착유형에 따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단지 비행문제에서만 보육시설 집단이 일반가정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회피형과 불안양가형 애착이 안정형 애착보다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를 높게 보고하였으며, 특히 불안양가형이 신체증상을, 회피형이 비행을 높게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집단은 시설에 늦게 입소할수록 내재화문제가 높았고, 특히 1세 이후에 입소한 경우에 내재화문제가 가장 높았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들의 애착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대상의 중요성과 입소시기에 따른 심리적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보육시설, 청소년, 애착유형,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 이 논문은 2003년 2월 석사학위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음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 은 경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번지  
TEL : 062-530-2650 / FAX : 062-530-2659 / E-mail : K2ang78@naver.com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은 물론, 심리·사회적 발달로 정서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역할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문제, 또래관계 등의 여러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이처럼 정서변화가 급격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울, 불안이나 문제행동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임영식, 한상철, 2000).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행동문제는 위축, 우울, 불안 및 신체적 증상 등의 내재화문제와 비행, 공격성 등과 같은 외현화문제로 표출된다(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비일관된 양육태도, 가정불화, 부모의 갈등 등이 있다(백현정, 1999; 이경주, 1997; Campell, 1995). 특히 양육자와의 정서적 신체적 거리감은 우울이나 행동장애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Jacobson, Fasman, & Dimascio, 1975), 양육자로부터 형성된 불안정한 애착은 정신병리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owlby, 1969; Main, 1996).

Bowlby(1982)에 의하면, 부모 및 양육자로부터 형성된 애착은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신념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한다.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은 성장과정을 통하여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애착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며(Hazan & Shaver, 1987), 청소년기 이후의 사회·정서적 적응 수준(Allen, Moore, Kuperminc, & Bell, 1998; Engels, Finkenauer, Meeus, & Dekovi&ccute, 2001),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Armsden & Greenberg, 1987). 한편 가정불화나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애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안정한 애착을 지니게 되며, 또래관계에서의 애착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Lopez,

Melendez, & Rice, 2000).

부모와의 질적인 관계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등에 의한 가정의 붕괴가 늘어나면서 아동이 거리에 방치되거나 시설보호를 받게 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50년대에는 주로 전쟁고아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혼모, 부모의 이혼 및 별거, 의부의모 및 부모의 학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최영립 외, 1990).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정불화, 이혼 및 부모의 무관심 등의 가정적 요인에 의한 보육시설 입소가 점점 증가('97년 55.1%, '98년 75%)하고 있다(동아일보, 2000).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면서 보육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해 이들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지고 있다(표갑수, 2001).

기존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아동에 대한 보육사의 보고나 행동관찰에 의한 연구가 많았으며, 보육시설에서 양육된 아동이 일반가정에서 양육된 아동보다 행동적인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는 단순한 비교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노혜련, 장정순, 1998; Vorria, Wlokink, Rutter, Pickles, & Hobsbaum, 1998; Yule & Raynes, 1972). 최근에 들어서야 가정적인 문제로 보육시설에 양육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조금씩 이루어졌다. 유안진, 민하영과 권기남(2001)은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지지적이고 양육적이지 못한 부모의 태도가 시설 입소 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순형, 이강이와 성미영(2001)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생존한 경우 부모가 생존하지 않은 아동보다 내재화 문제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미 시설에 양육되기 이전에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애착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안정되지 못한 애착은 자신과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에 대해 부정적 신념에 기초된 내적 작동모형을 형성하게 할 것이고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기여한다(Bowlby, 1982).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기 대인관계 애착이론을 적용하면서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의 3가지 애착유형이 나타나는 정도가 Ainsworth 등(1978)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내었고 이는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유대에 관한 Bowlby(1969)의 이론이 확장된 것이다. Collins와 Read(1990)는 Hazan과 Shaver(1987)의 범주적 측정에 근거하여 3가지 애착유형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들일수록 스스로 보다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갖는다. 또한, 친밀감을 느끼면서도 독립성을 추구하며 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 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친밀감을 덜 추구하고 대인관계에서도 덜 만족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자기주장적이며,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 타인에 대해서는 의존할만하지 않다고 여긴다. 불안양가적인 애착유형은 친밀감에 대해 강한 바람을 표현하고 대인관계에 강한 감정과 정서적 기복을 보고하며 불만족스럽게 느끼며, 자기주장적이지 못한다.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도 비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이처럼 애착과 관련된 내적 작동 모델에 따라 정서조절 방식이 다르게 형성되면서 정신병리적 경향도 애착양식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Kobak & Sceery, 1988). Rosenstein과 Horowitz(1996)는 정신장애를 지닌 청소년의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 중 몰입형 애착이 내재화 문제가 높았고, 거부적 회피형을 지닌 청소년은 외현화 문제와 연관된다고 하였다. Finzi, Ram, Hareven과 Weizman(2001)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은 회피형을 지닌 경우가 많았고 반사회적 행동의 위험이 있으며, 타인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방치된 아동은 불안양가형이 많았으며, 사회적 위축, 사회적 거부, 불완전한 감정을 지닌 경우가 많았다. 옥정, 오윤희와 정현옥(2001)의 비행 청소년의 연구에서는 몰입형 애착을 지닌 청소년이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를 높게 보고하였다. 대학생의 연구(김은정, 권정혜, 1998)에서는 몰입형 애착이 정신병리와 연관되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휘숙, 1997)에서는 회피적인 애착이 정신병리와 관련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Kobak과 Sceery(1988)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거부적 회피형 애착을 지닌 집단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반면, 몰두된 애착을 지닌 집단은 큰 불안과 많은 심리적 괴로움을 나타내고 높은 수준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고하여 애착양식에 따라 상이한 심리적 문제가 초래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앞선 선행연구들에서는 회피형과 불안양가형 애착 모두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으나, 특정 애착유형이 내

재화 또는 외현화문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육시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애착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영아의 애착행동에 대해 이루어져 왔는데(O'Connor, Bredekamp, & Rutter, 1999), 시설아동은 보육사에 대해 낮은 애착을 형성하며(Dontas, Maratos, Fafoutis, & Karangelis, 1985), 입소시기와 상관없이 시설에 양육된 기간이 길수록 애착안정성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정혜원, 1999).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유아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청소년의 타인과 관련한 애착유형을 살펴보고, 그들의 애착유형과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정에서 양육되는 청소년과 비교하여 보육시설에서 양육되는 청소년의 애착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애착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보육시설 청소년의 애착유형 중 어떤 애착유형이 내재화문제 또는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보육시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보육시설 청소년 집단내에서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Vorria 등(1998)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소한 아동의 경우 이혼이나 미혼모와 같은 가정문제로 입소한 아동보다 정서적, 행동적인 문제수준이 낮았다. 또한 부모의 정기적 방문은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이 없었으나, 같은 시설에서 지내는 친형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동의 행동과 또래관계가 더 긍정적이었

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덜 일탈적인 행동을 보였다. 더욱이 부모가 사망하고 친형제가 있는 집단이 부모가 생존하고 친형제가 없는 집단보다 문제수준을 낮게 보고하여, 오히려 부모의 존재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이순형, 이강이, 성미영, 2001). 입소연령 및 기간과 행동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입소연령이 낮고 입소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행동적인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Yule과 Raynes, 1972)와 달리 최근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에서는 보육시설에 입소한 연령 및 기간이 행동문제와 관련이 없었다(노혜련, 장정순, 1998; 이순형, 이강이, 성미영, 2001; Vorria et al, 1998). 또한, 보육시설 아동 및 청소년은 오랜 기간 동안 집단으로 양육되면서 대리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보육사와 생활하게 된다. 보육사는 애착대상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지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육사가 빈번히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Dontas 등(1985)에 의하면, 보육사의 빈번한 교체는 아동이 새로운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후 아동의 적응과도 관련이 깊다고 보고하였다(Tizard & Rees, 1975). 선행연구들은 주로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로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 집단내에서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적 요인들(입소원인, 입소연령 및 기간, 부모생존 유무, 시설내 친형제 유무, 정기적 만남 여부, 보육사 교체여부 등)에 따른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의 차이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보육시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적절한 심리적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보육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16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교집단은 일반가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16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육시설 집단의 평균연령은 15.11세(표준편차는 1.53), 성별은 남학생 86명, 여학생 78명이며, 학교는 중학생 9명, 고등학생이 70명이었다. 보육시설 집단의 시설 입소연령은 평균 7.63세(표준편차는 3.70), 입소기간은 평균 7년 8개월(표준편차는 3.87)이었다. 일반가정 집단의 평균연령은 15.20세(표준편차는 1.43), 성별은 남학생 84명, 여학생 80명이며, 학교는 중학생 75명, 고등학생이 89명이었다. 보육시설 집단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입소연령에서 5세 이전에 입소한 경우는 현재 보육시설로 바로 입소된 경우 외에도 이전 영아원 출신(7명)이 포함된 숫자이다.

애착유형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하였다. 애착유형의 하위요인인 의존, 불안, 친밀의 점수가 군집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 Ward's method와 Squared 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였다(Collins & Read, 1990). Ward's method는 먼저 나타난 군집들을 결합한 후에 새로 형성될 군집에 대한 집단내 제곱의 합(sum of squares)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군집화를 실행하며, 4개 군집에서 나누어진 2개 군집의 계수가 거의 유사한 값을 지니고 있으므로 4개 군집보다는 3개 군집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류된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2), 보육시설 집단과 일반가정 집단 모두 3개

표 1. 보육시설 집단의 특성

	특 성	명(%)
입소연령	1-5 세	54(33.2)
	6-10 세	69(42.3)
	11 세 이상	40(24.5)
입소원인	가정빈곤	80(48.8)
	가정불화	54(32.9)
	미아 및 기아	12(7.3)
	부모사망	11(6.7)
현재	미혼부모/영아원 출신	7(4.3)
	모두 생존	77(47.0)
	부 생존	12(7.3)
부모생존	모 생존	30(18.3)
여부	모두 사망	13(7.9)
	모름	32(19.5)
입소전 생활	부모집	86(52.4)
	친척집	54(32.9)
	아동학대/보호센터	3(1.8)
	아동보육시설(영아원)	6(3.7)
시설내 친형제	기타	15(9.1)
	유	91(55.5)
정기적 만남	무	73(44.5)
	유	102(62.2)
만남대상	무	62(37.8)
	부모	54(50.0)
	친척	33(30.6)
만남빈도	후원자	21(19.4)
	규칙적	51(47.2)
	불규칙적	40(37.0)
	기타	17(15.7)
보육사교체	유	118(72.0)
	무	46(28.0)

표 2. 집단/군집에 대한 각 하위요인의 평균(표준편차)

	보육시설 집단군집				일반가정 집단군집			
	1 (안정형)	2 (불안양가형)	3 (회피형)	F(2,161)	1 (안정형)	2 (불안양가형)	3 (회피형)	F(2,161)
n	64	47	53		69	55	40	
의존	3.56(.54) <sup>a</sup>	3.52(.36) <sup>a</sup>	2.87(.43) <sup>b</sup>	38.54 <sup>***</sup>	3.59(.50) <sup>a</sup>	3.49(.31) <sup>a</sup>	2.77(.43) <sup>b</sup>	49.22 <sup>***</sup>
불안	2.06(.34) <sup>a</sup>	3.02(.41) <sup>b</sup>	2.78(.53) <sup>c</sup>	76.44 <sup>***</sup>	2.06(.36) <sup>a</sup>	2.94(.39) <sup>b</sup>	2.76(.36) <sup>b</sup>	80.19 <sup>***</sup>
친밀	4.11(.44) <sup>a</sup>	3.86(.44) <sup>b</sup>	3.06(.44) <sup>c</sup>	84.07 <sup>***</sup>	4.02(.49) <sup>a</sup>	3.91(.42) <sup>a</sup>	3.04(.50) <sup>b</sup>	66.49 <sup>***</sup>

주. 점수범위는 1-5점임. 평균점수에 있는 영문 위첨자는 Scheffe' 검증에 의한 평균치의 집단간 차이임.

\*\*\*  $p < .001$

군집 간에 의존, 불안, 친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각 하위요인의 평균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Scheffe' 검증을 통해 군집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군집 1은 의존과 친밀이 높고 불안이 낮으므로 '안정형'임을 알 수 있다. 군집 2는 의존, 불안, 친밀이 높으므로 '불안양가형'과 비슷하다. 군집 3은 의존, 불안, 친밀이 낮으므로 '회피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 가지 군집이 애착유형의 개념과 일치하게 분류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Collins, 1996; Collins & Read, 1990).

애착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표 3), 보육시설 집단은 안정형 64명(39.0%), 회피형이 53명(32.3%), 불안양가형 47명(28.7%)이었다. 일반가정 집단은 안정형 69명(57.7%), 불안양가형 55명(33.1%) 그리고 회피형이 40명(9.2%)이었다.

표 3. 집단별 애착유형 분포 비교(%)

	보육시설	일반가정	$\chi^2$
안정형	64(39.0)	69(57.7)	2.63
불안양가형	47(28.7)	55(33.1)	
회피형	53(32.3)	40명(9.2)	

$\chi^2$  검증을 한 결과, 집단 간에 애착유형의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2, n=328)=2.63, ns$ .

#### 측정도구

##### 애착유형 척도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애착관계 질문지를 김은정과 권정혜(199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5점 척도이며, 의존(depend), 친밀(close), 불안(anxiety)의 세 차원을 측정한다. 의존은 중요한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에게 의존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 친밀은 중요한 타인에게 쉽게 접근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 그리고 불안은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분석을 통해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간 상관이 낮은 문항 2개를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하위요인들의 점수는 각 하위요인들에 해당하는 문항을 합산한 뒤 각 문항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로써 1-5점 범위이다. 하위척도에 의해 분류되는 애

착유형은 안정형이 타인과 가까워지고 친밀감을 느끼며,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에 대해 편안해 하며,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회피형은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에 불편해하고 타인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려우나,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불안양가형은 다른 사람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해 걱정하면서 타인과 가까워지고 친밀감을 느끼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 보인 내적일치도( $\alpha$ )는 의존, 불안, 친밀하위요인이 각각 .61, .62, .56이었다.

####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 Korean-Youth Self Report)

Achenbach(1991)가 개발한 YSR(Youth Self Report)을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과 홍강의(2001)가 한국형으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척도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 119문항 중에서 내재화 문제 척도와 그 하위척도인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그리고 외현화문제 척도와 그 하위척도인 비행, 공격성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는 T점수 63(백분위 90점)점 이상이면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정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적응수준에 대한 사전 판별에서는 T점수 60(백분위 80점)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연구절차

광주·전남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 중에서 연구에 협조한 보육시설 9개와 중학교, 고등

학교를 본 연구자가 자료 수집을 위해 2002년 7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걸쳐 방문하였다. 시설의 관계자 및 학교 선생님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설문에 동의한 청소년의 경우에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보육시설 집단의 표집은, 특수학교(특수학급 포함)에 다니거나 시설 관계자에 의해 지능이 낮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의 경우는 자료수집에서 제외하였다. 보육시설 집단의 응답자 186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후, 164명을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에 응한 보육시설 청소년의 특성과 관련된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시설관계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일반가정 집단은 응답자 284명 중에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함께 거주하지 않는 청소년은 제외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후 무선표집하여 164명을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검사는 본 연구자 혹은 시설 관계자(학교 선생님)에 의해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 결 과

### 집단별 애착유형에 따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차이

집단별 애착유형에 따른 내재화문제와 그 하위척도인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그리고 외현화문제와 그 하위척도인 비행, 공격성에 대한 표준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4에 제시되었다. 집단(보육시설, 일반가정)과 애착유형(안정형, 회피형 및 불안양가형)에 따른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의 평균점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 분석(MANOVA)을 사용하였다. Wilks' Lambda를 지표로 삼았을

표 4. 집단별 애착유형에 따른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의 평균(표준편차)

	보육시설 집단				일반가정 집단			
	전체 (n=164)	안정형 (n=64)	회피형 (n=53)	불안양가형 (n=47)	전체 (n=164)	안정형 (n=69)	회피형 (n=40)	불안양가형 (n=55)
내재화	49.85 (9.75)	45.38 (8.74)	53.47 (9.74)	51.87 (8.82)	50.95 (9.18)	46.35 (7.34)	55.77 (8.17)	53.20 (9.41)
위축	52.08 (7.78)	47.86 (6.79)	56.11 (8.36)	53.28 (5.20)	52.90 (7.78)	50.22 (7.75)	55.83 (8.22)	54.15 (7.75)
신체증상	52.04 (8.11)	51.16 (7.69)	52.40 (7.75)	52.83 (9.07)	51.87 (8.69)	49.74 (8.38)	53.05 (9.66)	53.67 (7.87)
우울/불안	51.64 (8.87)	47.14 (8.26)	54.81 (8.73)	54.19 (7.26)	52.28 (7.89)	48.32 (5.91)	54.83 (8.24)	55.40 (7.74)
외현화	54.82 (10.29)	52.47 (10.26)	56.96 (10.44)	55.62 (9.72)	54.76 (9.69)	51.23 (9.54)	55.80 (8.92)	58.44 (9.00)
비행	56.92 (8.88)	54.94 (8.80)	58.83 (8.49)	57.47 (9.05)	53.76 (8.24)	52.35 (7.05)	54.05 (8.90)	55.31 (8.93)
공격성	54.96 (8.95)	52.86 (8.69)	57.02 (9.08)	55.51 (8.71)	55.87 (9.19)	52.67 (9.02)	56.30 (9.15)	59.58 (8.06)

때, 내재화문제,  $F(2, 322)=31.85, p<.001$ , 외현화문제,  $F(2, 322)=10.01, p<.001$ , 에 대한 애착 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Scheffe* ' 검증을 통해 애착유형에 따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회피형과 불안양가형이 안정형보다 내재화, 외현화 문제점수가 높았다( $p<.001$ ). 내재화문제,  $F(2, 322)=2.47, ns$ , 외현화문제,  $F(2, 322)<1, ns$  에 대한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내재화문제,  $F(2, 322)<1, ns$ , 외현화문제,  $F(2, 322)=1.50, ns$ 에 대한 집단과 애착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과 애착유형에 따른 내재화문제의 하위척도인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과 외현화문제의 하위척도인 비행,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 분석(MANOVA)을 사용하였다. Wilks' Lambda를 지표로 삼았을 때, 비행에 대한 집단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1,322)=11.21, p<.01$ . 즉 보육시설 집단이 일반가정 집단보다 비행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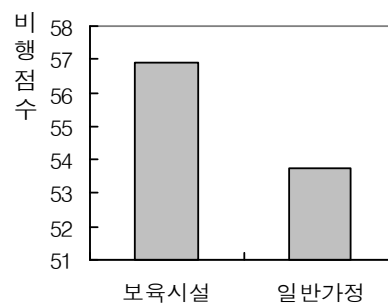


그림 1. 집단별 비행점수 비교



(그림 1). 위축,  $F(2, 322)=1.38$ , ns, 신체증상,  $F(2, 322)<1$ , ns, 우울/불안,  $F(2, 322)<1$ , ns, 공격성,  $F(2, 322)=1.14$ , ns, 에 대한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애착유형의 주효과는 위축,  $F(2, 322)=25.73$ ,  $p<.001$ , 신체증상,  $F(2, 322)=3.78$ ,  $p<.05$ , 우울/불안,  $F(2, 322)=33.38$ ,  $p<.001$ , 비행,  $F(2, 322)=4.19$ ,  $p<.05$ , 공격성,  $F(2, 322)=9.95$ ,  $p<.001$  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Scheffe' 검증 결과, 회피형과 불안양가형이 안정형보다 위축( $p<.001$ ), 우울/불안( $p<.001$ ), 공격성( $p<.001$ ) 점수가 더 높았다. 불안양가형이 안정형에 비해 신체증상을 높게 보고하였다( $p<.05$ ). 회피형이 안정형에 비해 비행( $p<.05$ ) 점수가 더 높았다. 위축,  $F(2, 322)<1$ , ns, 신체증상,  $F(2, 322)<1$ , ns, 우울 불안,  $F(2, 322)<1$ ,

ns, 비행,  $F(2, 322)<1$ , ns, 공격성,  $F(2, 322)=2.29$ , ns에 대한 집단과 애착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보육시설 집단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차이

보육시설 집단의 입소연령, 입소원인, 입소기간, 부모생존유무, 정기적 만남유무, 보육사 교체여부가 행동문제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입소연령에서만 행동문제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입소연령과 성별에 따른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그리고 각 하위척도에 대한 표준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5에 제시되었다. 성별과 입소연령(1-5세, 6-10

표 5. 보육시설 집단의 성별과 입소연령에 따른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의 평균(표준편차)

	1-5 세			6-10 세			11 세이상		
	전체 (n=54)	남 (n=26)	여 (n=28)	전체 (n=69)	남 (n=34)	여 (n=35)	전체 (n=40)	남 (n=26)	여 (n=14)
내재화	47.00 (9.75)	47.50 (9.80)	46.54 (9.75)	50.06 (9.09)	51.00 (9.64)	49.14 (8.56)	53.85 (9.28)	54.00 (9.75)	53.57 (8.68)
위축	50.07 (7.66)	52.58 (4.00)	47.75 (9.43)	52.97 (7.63)	55.26 (6.56)	50.74 (8.02)	53.75 (7.15)	54.38 (6.52)	52.57 (8.33)
신체증상	50.61 (8.07)	54.08 (6.05)	47.39 (8.47)	51.13 (7.11)	52.79 (4.09)	49.51 (8.91)	55.97 (8.34)	57.31 (8.06)	53.50 (8.58)
우울 불안	49.59 (8.90)	52.58 (5.27)	46.82 (10.64)	51.72 (8.21)	54.94 (6.76)	48.60 (8.37)	54.68 (8.99)	55.65 (8.11)	52.86 (10.52)
외현화	54.24 (9.99)	54.08 (9.57)	54.39 (10.54)	54.32 (10.45)	55.15 (11.91)	53.51 (9.00)	56.85 (10.22)	57.85 (10.98)	55.00 (8.72)
비행	56.41 (8.54)	57.23 (6.96)	55.64 (9.84)	56.71 (8.95)	59.94 (8.20)	53.57 (8.63)	58.23 (9.27)	59.92 (8.20)	55.07 (10.59)
공격성	54.24 (9.31)	55.31 (7.99)	53.25 (10.43)	54.67 (8.77)	56.79 (7.71)	52.60 (9.34)	56.85 (8.47)	58.08 (8.90)	54.50 (7.37)

세, 11세 이상)에 따른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사용하였다. Wilks' Lambda를 지표로 삼았을 때, 입소연령의 주효과는 내재화문제에서 유의하였으나,  $F(2, 157)=5.63, p<.01$ , 외현화문제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F(2, 157)<1, ns$ . 입소연령에 따른 내재화문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Scheffe' 검증 결과, 11세 이후에 입소한 집단이 5세 이전에 입소한 집단보다 내재화문제가 높았다( $p<.05$ ).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대한 성별의 주효과,  $F(2, 157)<1, ns$ , 성별과 입소연령의 상호작용,  $F(2, 157)<1, ns$ 은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과 입소연령에 따른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의 하위척도에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Wilks' Lambda를 지표로 삼았을 때, 성별의 주효과는 위축,  $F(1, 157)=9.65, p<.01$ , 신체증상,  $F(1, 157)=14.17, p<.001$ , 우울/불안,  $F(1, 157)=13.41, p<.001$ , 비행,  $F(1, 157)=9.08, p<.01$ , 그리고 공격성,  $F(1, 157)=5.08, p<.05$ 에서 유의하였다. 즉,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의 각 하위척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입소연령의 주효과는 위축,  $F(2, 157)=3.07, p<.05$ , 신체증상,  $F(2, 157)=5.04, p<.01$ , 우울/불안,  $F(2, 157)=3.32, p<.05$ 에서 유의하였다. Scheffe' 검증 결과, 11세 이후에 입소한 집단이 5세 이전에 입소한 집단보다 위축, 우울/불안이 높았다( $p<.05$ ). 그리고 5세 이전과 6-10세에 입소한 집단보다 11세 이후에 입소한 집단이 신체적 증상을 더 호소하였다( $p<.05$ ). 비행, 공격성에 대한 입소연령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2, 157)<1, ns$ . 위축,  $F(2, 157)<1, ns$ , 신체증상,  $F(2, 157)<1, ns$ , 우울/불안,  $F(2,$

$157)<1, ns$ , 비행,  $F(2, 157)=1.16, ns$ , 공격성,  $F(2, 157)<1, ns$ 에 대한 성별과 입소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애착유형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고, 각 애착유형에 따라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에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보육시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 집단과 일반가정 집단의 애착유형 분포를 살펴본 결과, 보육시설 집단은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 순이며, 일반가정 집단은 안정형, 불안양가형, 회피형 순이나, 두 집단 간 애착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집단이 일반가정 집단과 비교하여 애착유형에 따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단지 비행문제에서만 보육시설 집단이 일반가정 집단보다 높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시설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하여 애착유형에 차이를 보일 것이며, 특정 애착유형에 따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이다. 보육시설 청소년이 시설에 입소한 평균 연령이 7.63세이고 72.6%가 부나 모가 생존하며, 81.7%가 가정적인 문제로 입소한 점을 볼 때, 보육시설 청소년은 이미 시설에 입소되기 전에 애착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추가적으로 보육시설에 입소하기 전 부모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 중 한명의 가출

이나 행방불명이 68명, 이혼 33명, 재혼 22명, 정신장애 11명, 알콜중독 8명, 정신지체 3명, 자녀 학대가 6명으로, 이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자기 보고로 평가된 애착유형과 행동문제에서 보육시설 집단이 일반가정 집단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보육시설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적응이 일반가정 집단과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문제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국한하여 이들의 행동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그 외의 다른 부적응 문제들은 간과된 면이 있다. 한편, 보육시설 청소년의 57.3%가 시설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연구에 협조한 시설환경이 비교적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보육시설 내 생활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이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있다는 연구를 고려했을 때(노혜련, 장정순, 1988;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 2001), 이러한 시설의 환경은 보육시설 청소년이 입소 전에 형성되었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을 가능성도 고려된다.

둘째, 보육시설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유일하게 비행문제와 같은 외현화문제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혜련과 장정순(1988)의 연구에서도 보육시설 집단이 일반가정 집단에 비해 외현화 문제가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보육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개인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 즉,

보육시설 집단은 일반가정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낮게 보고하며, 일반가정 집단에 비해 외현화문제를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일반가정 집단의 불안양가형이 외현화문제 중 공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단순히 거주여부에 따라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해 논의하기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일반가정 집단의 생활수준에 따라 애착유형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중류층 이상 집단은 안정형(47.7%)이 가장 많은 반면 하류층 집단은 불안양가형(48.5%)이 가장 많았다,  $\chi^2(2, n=163)=9.46, p<0.1$ . 흔히 빈곤층 청소년들이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기존의 가정을 고려해 보면(Duncan & Brooks-Gunn, 1997), 일반가정 집단의 높은 공격성이 하류층 집단의 불안양가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유추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정 집단과의 비교가 주목적이었고 하류층 집단도 소수여서 거주 여부에 따라 비교를 하였으나, 추후엔 빈곤가정 집단과도 함께 비교해 본다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체 청소년 집단에서 회피형과 불안양가형 애착을 지닌 청소년이 안정형 애착을 지닌 청소년에 비해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를 높게 보고하여, 회피형과 불안양가형 애착과 같은 불안정한 애착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은정, 권정혜, 1998; 옥정, 오윤희, 정현욱, 2001; 장휘숙, 1997; Finzi et al, 2001; Main, 1996). 즉,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의 의미있는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이 작용되면서 다양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Bowlby, 1982; Collins & Read, 1990). 한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하위척도를 살펴보면, 회피형과 불안양가형이 안정형보다 위축, 우울/불안, 공격성을 높게 보고하였다. 특히, 불안양가형이 안정형에 비해 신체증상을 높게 보고하였고 회피형이 안정형에 비해 비행수준을 높게 보고하여, 불안양가형이 내재화문제로, 회피형이 외현화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는 있겠다(Rosenstein, Horowitz, 1996). Mikulincer, Florian과 Weller(1993)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안정형은 지지추구 대처전략을 주로 사용하였고, 불안양가형은 정서중심대처 전략을, 회피형은 거리대처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제안하였다. 즉, 애착유형에 따라 정서조절 방식이 다르게 형성되면서 정신병리적 경향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Kobak & Sceery, 1988), 타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신뢰하지 않는 회피형의 특성은 타인과 거리를 두며 주로 외현화된 방식으로 표현되는 반면, 타인과 과도한 친밀감을 원하며 강한 정서적 기복을 보이는 불안양가형의 특성은 심리적 고통감을 크게 느끼면서 주로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재화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육시설 집단내에서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결과에서는 시설에 입소한 시기에서만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즉, 시설에 늦게 입소할수록 내재화문제가 높았으며, 특히 11세 이후에 입소한 경우에 내재화문제를 가장 높게 보고하였다. 이는 시설에 입소한 연령이 낮을수록 문제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Yule과 Raynes(1972)의 연구와 입소 연령이 행동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기존연구와 다른 결과이다(노혜련, 장정순, 1998; 이순형, 이강

이, 성미영, 2001; Vorria et al, 1998).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평균 입소연령이 7.6세로 학령기에 들면서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 늦게 입소한 청소년일수록 부모와 함께 생활한 기간이 많았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빈곤 및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입소한 경우가 많음을 고려했을 때, 이미 입소 전에 부모 및 가정환경으로부터 받은 상처경험들이 많았을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현재 부모가 생존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위축되고 비행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부모의 존재가 이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이순형, 이강이, 성미영, 2001). 한편 보육사가 바뀐 경험이 있는 집단이 보육사가 바뀐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더 위축되고 비행, 공격적인 경향이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보육사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분열된 관계가 누적될수록 아동의 이후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Tizard와 Rees(1975)의 연구에서처럼, 보육사 교체경험은 이미 부모에게서 받은 심리적 상처에 더하여 보육시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고려된다.

다섯째, 보육시설 집단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위축, 신체증상, 우울 및 불안과 비행, 공격성을 높게 보고하고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높게 보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 집단에 대한 기존연구(노혜련, 장정순, 1988)에서도 남자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행동문제를 높게 보고하였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외현화문제를 많이 보고하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내재화 문제를 높게 보고한다는 일반적인 청

소년기 행동문제의 성차에 관한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곽금주, 문은영, 1993). 사회적 지지가 적응 수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지지에 대해 높게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이경주, 1997). 또한 남학생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의 이혼 등에 대해서 여학생보다 내재화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는 연구가 있다(Bolger, Patterson, Thompson, & Kupersmidt, 1995). 즉 보육시설에서 양육되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여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 청소년의 심리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보육시설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비행과 같은 외현화문제를 높게 보고하고 있어, 이들의 부적응적인 측면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둘째, 시설에 늦게 입소한 청소년의 심리상태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며, 입소 초기에 이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부모 생존 여부와 보육사 교체 경험 등이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는 보육시설 청소년에게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상이 필요하고 이러한 애착관계가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소년과 접촉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방안 및 상담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높게 보고하는 등 남학생의 부적응이 예상되므로, 남학생의

정서적 상태에 대해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일반가정 집단과의 단순한 비교보다는 보육시설 청소년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와 전남지역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전체대상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설문응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고려된다. 본 연구 대상자가 생활하는 보육시설이 비교적 좋은 환경으로 평가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시설환경이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자 외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설관계자 또는 학교 선생님이 직접 설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설문환경이 응답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기보고로 기술하는 것이므로 특히 보육시설 청소년의 경우 문항내용에 대한 거부감이 설문응답에 영향을 주었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문에 응답했을 수도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애착척도가 연구대상자의 타인과 관련된 애착에 관하여 성인에 비해 폭넓게 측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몇 문항을 제거한 후에도 신뢰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다. 보다 청소년에게 적합하고 신뢰로운 애착척도가 필요하다. 또한 애착이 단일한 차원으로 탐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보고 이외에 면접법을 통한 깊이있는 탐색이 필요하며, 이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보육시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보육시설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정보는 보육시설에서 제공한 객관적 자료에 의존하였다. 이순형, 이강이와 성미영(2000)은 실제자료와 아동이 지각하는 입소원인에서 차이를 발견했으며, 경제적 이유 지각이나 입소원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낮은 학교적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입소원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원인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다섯째, 유안진, 민하영과 권기남(2001)은 입소 전 부모와의 관계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 중에서 입소초기에는 부모의 생존여부에 대해 알 수 없었지만 현재는 부모와 연락이 가능하여 부모와 청소년이 접촉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될 수 있는 입소 전과 후의 보육시설 청소년-부모 애착관계의 질과 더불어 또래 관계의 질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곽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성인기 애착관계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39-153.

노혜련, 장정순 (1998). 육아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4(4), 45-67.

동아일보 (2000. 1. 3.). 새천년 혼자 맞은 IMF

고아들 “경기는 좋아졌다는데...”.

백현정 (1999). 아동이 지각한 경제적 어려움, 부부갈등, 양육태도 및 애착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옥정, 오윤희, 정현옥 (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재소 중인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59-270.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 (2001). 시설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3), 135-149.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2.

이경주 (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순형, 이강이, 성미영 (2000).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의 입소원인 지각에 따른 초기 학교적응의 차이. 대한가정학회지, 38(11), 181-191.

이순형, 이강이, 성미영 (2001). 시설아동의 가족관계망에 따른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9(4), 79-89.

임영식, 한상철 (2000). 청소년 심리의 이해. 서울: 학문사

장휘숙 (1997). 애착과 MMPI 하위척도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323-341.

정혜원 (1999). 영아시설 영아와 보육사간 애착

-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영립, 권도용, 김범수, 김수영, 김정길, 박석정, 박표영, 이종복, 전광현 (1990). 사회 복지시설론. 서울: 범론사.
- 표갑수 (2001).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 나남출판.
- Ainsworth, M. D. S., Blehar, M. C., &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NJ: Erlbaum.
- Allen, J. P., Moore, C., Kuperminc, G., & Bell, K.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 (5), 1406-1419.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artholomew, K., & Horowitz, L.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olger, K. E., Patterson, C. J., Thompson, W. W., & Kupersmidt, J. B. (1995).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intermittent family economic hardship. *Child Development*, 66, 1107-1120.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 (4), 664-678.
- Campell, S. B. (1995).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1), 113-149.
- Collins, N. L. (1996).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Implications for explanation, emotion,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4), 810-832.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Dontas, C., Maratos, O., Fafoutis, M., & Karangelis, A. (1985). Early social development in institutionally reared Greek infants: Attachment and peer interac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36-146.
- Duncan, G. J., & Brooks-Gunn, J. (1997). Welfare's new rules: A pox on children.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14, 67-73.
- Engels, R. C. M. E., Finkenauer, C., Meeus, W., & Dekoviccaute, M.(2001). Parental attachment and adolescent's emotional adjustment the associations with social skill and relational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28-439.
- Finzi, R., Ram, A., Hareven, D., & Weizman, A. (2001). Attachment styles and aggression in physically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6), 769-786.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Jacobson, S., Fasman, J., & Dimascio, A. (1975). Deprivation in the childhood of depressed wome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60, 5-14.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1), 135-146
- Lopez, F. G., Melendez, M. C., & Rice, K. (2000). Parental divorce, parent-child bonds, and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mong college students. A comparison of three racial/ethnic group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2), 177-186.
- Main, M. (199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n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2. Overview of the field of attach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2), 237-243.
- Mikulincer, M., Florian, V., & Weller, A. (1993).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817-826.
- O'Connor, T. G., Bredekamp, D., & Rutter, M. (1999). Attachment disturbances and disorders in children exposed to early severe depriva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0(1), 10-29.
- Rosenstein, D. S., & Horowitz,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2), 244-253.
- Tizard, B., & Rees, J. (1975). The effect of early institutional rearing on the behaviour problems and affectional relationships of four-year-ol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6, 61-73.
- Vorria, P., Wlokind, S., Rutter, M., Pickles, A., & Hobsbaum, A. (1998). A comparative study of Greek children in long-term residential group care and in two-parent families: II. Possible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Child Psychiatry and Psychology*, 39(2), 237-245.
- Yule, W., & Raynes, N. V. (1972). Behaviou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residential care in relation to indices of separation. *Journal of Child Psychiatry and Psychology*, 13, 249-258.
- 원고접수일 : 2005. 9. 1.  
게재결정일 : 2005. 11. 25.



## Attachment Styles and Behavior Problems of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EunKyung Choi

SooSung Oh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dolescents reared at institutions were compared to the home-reared adolescents in attachment styles distribution. Furthermore the present research was attempted t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ts reared at institutions. In additi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differences in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were explored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reason for admission, age at first admission, years spent in institutions, parental existence, siblings in the same institution, regular contact with parents or others, and changes in staff).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4 institution-reared adolescents and the comparison group was 164 two parent-reared adolescents. Results of cluster analysis indicate that in the institutionalized group attachment styles were classified into secure, avoidant, and ambivalent, and in the home-reared group attachment styles were secure, ambivalent and avoidant. There was no remarkabl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in the three attachment style distribution. Furthermor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ccording to attachment style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Only delinquent behavior level of institutionalized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home-reared group. Both of institutionalized and home-reared group with avoidant and ambivalent attachment type had higher level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Particularly ambivalent attachment type had higher levels of somatization and avoidant attachment type had higher levels of delinquent. Moreover, the later institutionalized group had higher levels of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particularly above age 11 at admission was in the most highest level. In addition, boys had mor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an girls. Based on results in this research, discussion was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attachment formation and psychological intervention at the first admission in psychosocial adjustment of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Keywords : institutional rearing, adolescents, attachment style,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